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큰 맘 먹고 나섰던 여행은 일상으로 돌아올 때 '사진'을 남긴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어느 유명한 디지털카메라 제조업체의 광고문구처럼, 여행 후 남은 한장의 사진은 추억의 일부가 된다. 여행과 사진은 참으로 잘 맞는 궁합이다. 여행에 사진이 없더라도, 사진을 찍으려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들이 어우러지는 경우 훌륭한 작품이 되곤 한다.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사진을 보는 사람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사진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진이라는 콘텐츠가 '지도'라는 정보를 만나서 더 좋은 추억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임영모 객원기자

지도와 사진의 특별한 만남

사진 문화는 이제 너무나 대중적인 생활 자체가 되어 버렸다. 예전에는 사진 찍는 경우가 특별한 행사로 생각되거나, 사진 찍는 사람이 전문가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사진을 잘 찍든 못 찍든, 카메라 성능이 좋은 것이든 떨어지는 것이든 상관없이 사진은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 혹은 놀이가 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사진 관련 문화를 바꾸어놓았다. 사진기에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은 후 현상소에 맡기고 인화된 사진을 찾아오는 일련의 사진 문화 행위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사진 마니아이거나 특별한 사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기껏 이를 디지털화 했던 기술은 인화된 사진 혹은

필름을 스캔하여 디지털콘텐츠로 활용하던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진기에 메모리 카드를 넣고 사진을 찍고, 이를 PC의 USB포트나 메모리 카드 슬롯에 꽂아 파일로 저장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었다.

대중화된 사진 문화, 세가지 발제

디지털카메라의 보급과 저가화는 사진 문화의 대중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진 문화의 대중화가 이뤄지기까지는 비단 디지털카메라만 활약을 한 것은 아니다. 전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시피 한 휴대전화는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탑재되면서, 그리 고급스럽거나 격식을 갖추지 않은 사진이긴 하지만 일상의 모습을

그때그때 바로 촬영하게 되는 문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인터넷 문화의 변화도 사진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예전에는 사진 동호회나 사진 관련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사진 관심자들만의 인터넷 문화가 형성됐으나, 1인 미디어인 블로그와 미니홈피 문화 등이 확산, 정착하면서 개인들의 사진 콘텐츠가 인터넷 수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의 모습, 오늘 무엇을 먹었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디에 가서, 어떤 것을 즐겼는지, 그리고 그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을 하는 문화는 자연스러운 개인 관심사의 노출과 이를 궁금해 하는 사용자들의 관심이 어우러지면서 크게 성장했다.

사유 1 여기가 어디지

사진이라는 콘텐츠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장소'라는 개념이다. 물론 피사체가 되는 대상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대상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기가 어디지'라는 광고문구로 시작하는 TV CF가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 보여주는 이 광고에는 수려한 영상미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각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들이 나온다. 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에 나왔던 청송 주산지의 모습, 정선 가수리의 풍차 풍경, 선유도의 실루엣 강



한국관광공사에서 배포하는 국내 관광지지를 소개하는 바탕화면. 사진은 청송 주산지의 모습. 사진을 보면 그곳으로 떠나고 싶어진다.

한 그물 육교, 하동 평사리 악양벌의 자운영 가득 펼쳐진 풍경 등의 영상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부추인다. 그 공간에서라면 자신이 한 편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문학 작품에서 느꼈던 낭만과 감동이 물밀 듯 다가올 것만 같다. 우리 곁의 지름신은 단지 물건만을 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찾아 떠나게 만든다. 그것이 사진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좋은 사진을 보면, 그곳의 위치가 궁금해진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진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도대체 그곳은 어딜까. 인터넷 등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보았을 때, 그곳의 위치를 함께 지도에 표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번 호 원고 주제의 일차 발제 사유다.

사유 2 여기는 또 어디였지

컴퓨터 내의 폴더를 뒤지다 보면 여러 사진 파일들을 찾게 된다. 디지털카메라, 혹은 휴대전화로 촬영해두었던 이미지들을 보다보면 도대체 어디서 찍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디지털 사진들은 그나마 다행히 '카메라 시스템의 시간 정보만 맞다면' 파일 정보 내의 날짜와 시간과 같은 정보들이 있으므로, '때'에 대한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곳'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여행을 가던 중간에 마주쳤던 너무 멋진 풍경,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서 보관해 두고, 언젠가 문득 그 사진을 보고 다시 떠나고자 할 때, 그 사진을 본 다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곳에 나도 가볼 수 있냐'고 물어올 때, 그 위치를 선뜻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꼼꼼한 사용자라면 일반 지도 위에 표시를 하던지, 몇 번 국도에서 어느 방향 쪽으로 몇 Km 식으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달아두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용자가 대다수다. 즉, 사진 찍는 행위 따로, 사진 올리는 행위 따로, 기록 남기는 행위 따로 이루어지는 사용자가 많다. 디지털 사진이 넘쳐나면서,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 정작 추억으로 건질 사진을 표시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소홀해진 느낌도 든다.

내가 찍은 사진을 저장할 때 촬영 위치를 함께 저장해 놓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아무리 건망증 심하고 심지어 치매증세가



필자가 뉴질랜드 여행에서 건진, 호수 옆에 위치한 교회 내부에서 본 풍경. 하지만 호수의 이름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 건망증과 망각력 뛰어난 필자 같은 사람을 위해 사진과 촬영 지를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 보인다고 놀림을 받는 나에게도 '천재의 암기보다 훌륭하다는 천치의 메모' 수단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차 발제 사유다.

사유 3 여기에는 어떤 게 있지



검색 사이트에서 설치코지를 찾으면 해당 단어가 파일명 혹은 본문 내용에 언급되어야만 해당 지역의 사진으로 검색된다. 만약 제목에 없다면 그 이미지는 그 지역 사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첫번째 발제는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 작품을 보고 그 곳의 위치를 궁금해 하는 경우이며, 두번째 발제는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 기록을 남김에 있어 위치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의 니즈를 찾아보면, 어딘가를 목적으로 정하고 가고자 할 때에 그곳의 풍경을 사진으로나마 미리 익히고 싶다는 욕구도 존재한다.

가령, 태안반도 꽃지해수욕장 근처로 2박 3일 동안 놀러가고자 하는데, 그 곳의 풍경과 숙박, 음식 등의 정보를 사진으로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 예약을 하기 위해 들렀던 펜션 사이트의 사진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일반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진에 남겨놓은 것들에서도 그러한 예술의 혼이 느껴질까. 막상 '사진빨'에 속아서 여행을 망쳤다는 말들도 많이 있던데 괜찮을까.

정보 검색을 하면서 종종 사진 검색도 자주 하는 편이다. 여행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행선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동네의 온갖 먹거리, 놀거리, 잘 곳 등의 정보를 꼼꼼히 준비한다. 해당 관심지역(POI, Point Of Interest) 정보들을 보면서 나와 비슷한 시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 일반 사용자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해당 지역의 UCC(User Created

Content)를 찾기 간편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사진이 검색엔진에서 검색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 없이 파일명에 언급이 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다. 물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진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그를 통해 검색될 수는 있지만, 이미지 자체로 볼 때에는 자신의 속성 정보를 알리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아무리 제주도의 '섬지코지'를 찍은 사진이더라도 파일명에 '섬지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와이프와 함께 신혼여행에서'와 같이 되어 있다면 결국 검색엔진에서는 '섬지코지' 사진이 아니라고 검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진 파일 자체에 위치 정보가 함께 들어있다면 아무리 파일명에 섬지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섬지코지 사진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장소 검색어만으로도 해당 장소에 해당하는 사진들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바로 이번 원고 발제의 세번째 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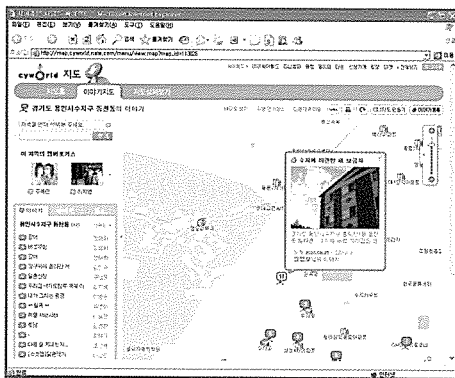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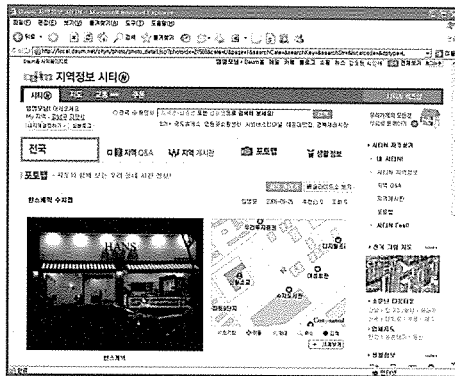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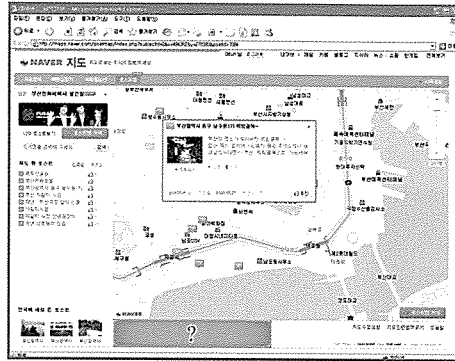
지도에 사진을 엮다

발제가 다소 긴 느낌이 들지만, 이에 대한 움직임은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 이제 사진은 그저 사진의 형태로 머물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사진과 지도가 결합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기록을 남기는 용도이며, 지도는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한 것으로 과거와 미래의 시각이 엇갈리는 성격 다른 콘텐츠일 수 있으나, 사진을 보고 길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둘다 미래의 상황이 되고, 사진을 지도 정보와 함께 저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둘 사이의 궁합이 그리 잘 맞을 수 없다. 사진과 지도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문화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의 대표주자인 네이버의 지역 메뉴를 보면 지도 서비스 가운데 '포스트맵'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는 원하는 위치에 사용자가 임의로 사진과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본 지도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서비스 중에서도 '포토맵'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등장한 '포토+지도' 서비스들. (상)네이버의 포스트맵, (중)다음의 포토맵, (하)싸이월드의 이야기 지도

기능이 있다. 사진을 찍은 위치를 선택하고 설명을 달아두면 지도 위에 사진의 지점을 표시해주는 '포토+지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싸이월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기능을 추가해 선보이고 있다. 싸이월드에서는 미니홈피의 사진 업데이트 기능에 '지도 첨부' 기능을 더하여, '이야기 지도'라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 게시를 할 때에 지도 위에 촬영 위치를 선택하고, 이를 올리면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이야기 지도가 완성된다.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사진 게시물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해당 사진의 위치정보에 대해 함께 노출하는 기획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다. 게시 형태는 공동 사진 게시판 형태와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연결형 모델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를 위치정보를 포함해서 노출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집, 우리 동네에 추천하고자 하는 볼거리, 사진이 곁들여져 있는 약도, 단순한 위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사진으로 매장 풍경을 보여주는 업체 소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이러한 활용 모습을 응용해 보면 지금까지 LBS 서비스 제공업체가 끌어안고 있었던 관심지역(POI) 정보 구축의 비용이나 노력을 UCC 개념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해외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이러한 콘텐츠 생성 및 유통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지점에 사진 콘텐츠가 몰렸을 경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아이콘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지도 축척에 따른 이미지 노출 적정 개수와 레벨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의 고려 사항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자동으로 사진의 위치를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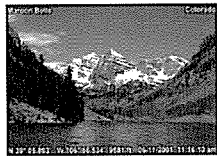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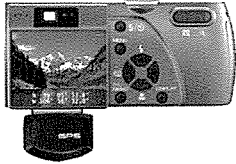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 요구가 있고, 업체의 웹서비스 노력을 볼 때, 이를 번거롭지 않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일일이 해당 위치를 지도 위에서 클릭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억력을 요구하며, 또한 상당한 수준의 독도 능력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귀찮아서 지레 포기하고 만다. 굳이 위치 정보를 함께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정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이건 아니잖아'다.

모든 발명의 원천은 귀찮음이며, 조직에 새로운 업무를 맡기려면 그 중 가장 게으른 사람한테 역할을 부여하라는 말도 있다.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귀찮은 과정이나 숙제를 대면하면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요령을 찾아낸다. 결코 일만 열심히 하는 성실한 바보가 할 수 없는 답을 꺼내 놓는다. 뭔가 이러한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사진과 지도를 쉽게 결합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이미 시작되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사진을 찍을 때 현재 위치가 자동 삽입되는 방법일 것이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별도의 위치 인식 장치가 추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현재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믿을 수 있는 GPS칩이 쓰이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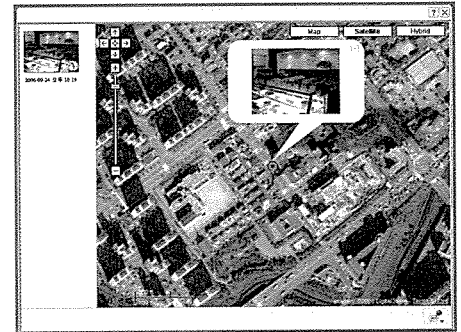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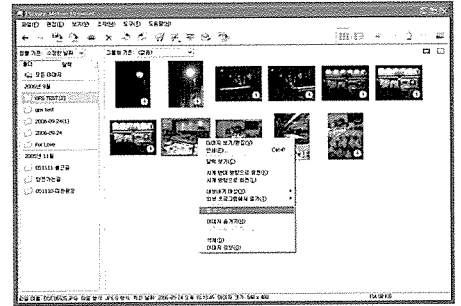
외장카드형 GPS를 꽂아 GPS 좌표를 사진에 넣을 수 있는 리코의 <Caplio Pro G3>. 사진에 좌표를 프린트할 수 있으며, 파일 속성에도 좌표값이 삽입된다.

장비 중 하나로, 리코에서 출시한 <Caplio Pro G3>라는 모델이 있었다. 이는 외부 확장 카드를 꽂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독특한 모델로, CF카드 슬롯에 통신 카드를 삽입하면 카메라에 저장한 사진을 바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GPS 카드를 삽입하면 위성에 의한 좌표값을 인식하여 이를 이미지에 인코딩하여 위치 정보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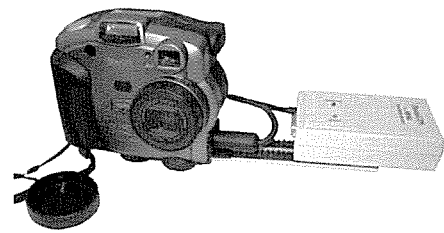
코닥에서는 <DC290>이라는 모델이, PhotoGPS라는 기기와 연동하여 이와 비슷한 기능을 선보인 바 있으며, 니콘의 DSLR 카메라 <D2X> 역시 MC-35라는 GPS 변환용 코드를 채택하여 외부 GPS 기기와의 연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카메라 관련 하드웨어 시장의 움직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시험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지만, 활용 시장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었고 용도에 비해 가격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특수용도 종사자들, 가령 전국을 돌며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고, 영화 촬영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행정적인 단속 위치를 기록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만약 주차단속요원이 이러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면 별도의 위치 기록이나 시간 기록 없이도 GPS의 위성 표준 시간값과 위치값이 기록된 주차 위반 증거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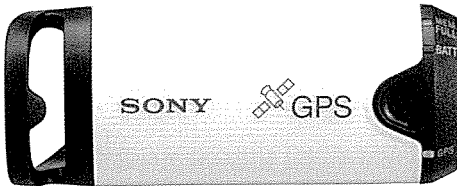
최근 소니에서 발표한 보조 GPS 장치인 <GPS-CS1> 제품은 위의 제품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위의 제품들이 주로 카메라와 GPS 장비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반면, 이 제품은 GPS 장치로서만 따로 존재한다. 이 제품은 GPS 단말기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디스플레이조차도 없다. 전원을 넣으면 그저 GPS를 수신하고 있다는 녹색 불만 주기적으로 깜박거릴 뿐이라 이 제품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로서는 도대체 무슨



트랙로그 파일과 이미지가 결합되면, 사진에 나침반 모양의 아이콘이 생긴다. '맵보기' 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사진을 촬영한 위치를 구글 맵을 통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지형에서는 위성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코닥의 <DC290> 모델은 PhotoGPS와 연결하여 사진 촬영 현 위치값을 인식한다.



소니에서 발표한 <GPS-CS1>. 최소한의 디스플레이도 없이 단지 세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는 트랙로그 기록기라 할 수 있다.



니콘의 <D2X, MC-35>는 GPS 변환 코드를 통해 외부 GPS 기기와 연결하여 위치를 인식, 삽입할 수 있다.

기능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제품이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제품의 10만원 내외 가격이 부담된다면 부담될 수도 있으나, 뒤에 설명하는 내용과 사용자의 니즈가 맞아떨어진다면 착한 가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 제품의 용도는 엄밀히 말하면 트랙로그 (Track Log)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트랙로그란 사람 혹은 장비의 이동을 로그파일로 기록하는 것으로, GPS에서 인식한 위치값과 시각대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일종의 궤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제품의 전원을 켜고 이동을 하면 15초 간격으로 이동장소의 위도 및 경도 등 좌표를 기록하고, 위성에서 발사하는 표준 시간값을 함께 저장한다. 이를 GPS Image Tracker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백업하여 지도에 올려보면 사용자의 이동 궤적을 지도상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내장 시계를 표준시각에 맞춰두고 촬영을 한 후, <GPS-CS1>을 통해 습득한 궤적과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사진의 위치값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다. 이 기능은 소니 디지털카메라에서 제공하는 픽처모션 브라우저 (Picture Motion Browser)가

담당한다. 이를 통해 사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트랙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 교집합이 되는 '시각(Time)'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이미지와 위치라는 별도의 데이터를 관계 짓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치값을 얻은 이미지는 픽처 모션 브라우저 파일 리스트 상에 나침반 아이콘이 달린 채 표시되며, 빠른 메뉴의 '맵보기' 기능을 선택하면 구글맵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위에 해당 위치를 '가상 압정(virtual push pins)'으로 표시하여 보여준다. 국내의 일반 맵은 지원하지 않으며, 위성촬영 맵은 활용 가능하나 국내의 경우 주요 지점을 제외하고는 디테일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어서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여건의 국산화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다. 호기심에 사서 테스트해 보고 방치할 성격의 제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에서 지원하는 활용 여건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려면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서 응용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표준 규격이 움직인다

이미지 파일이나 사진 파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Exif 규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용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교환이미지파일 형식(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이미지를 주고받고 유통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취득한 이미지 원본에 곁들여 촬영일이나 시간 정보는 물론, 카메라 종류, 해상도, 노출, 셔터 스피드 등의 부수 정보를 함께 저장하는 파일 포맷이다. 주로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데이터는 JPG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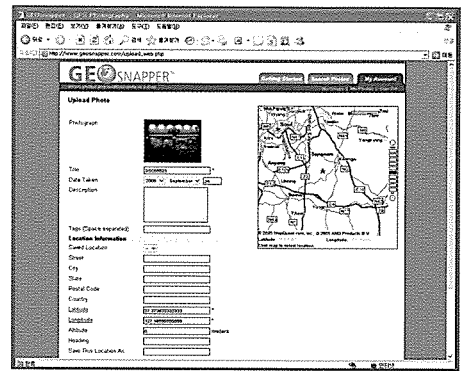
일에 헤더값을 이용하여 부수정보를 삽입해 놓아 이미지 관리를 편리하게 한다.

일본 JEITA에서 2002년 4월 발표한 Exif v2.2의 스펙을 살펴보면 위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사진의 위치 정보 표시'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JPG 이미지 규격에 있어서도 JPEG 2000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디지털이미지와 관련된 국제 표준 규격에서는 사진과 위치정보의 동거 생활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겠다.

소니 <GPS-CS1>을 통해 얻은 이미지의 Exif 파일은 GPS 값을 통해 촬영 위치 정보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은 Null 값을 띠고 있으나, 이미지에 GPS 좌표가 내장된 경우 이에 대한 속성값을 Exif에서 보듯이 파일 자체가 담고 있으며, 이를 해독하여 지도 위에 표시하거나 검색어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포털의 사진 위치 정보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해외 사이트 지오스내퍼(www.geosnapper.com)는 국내 서비스 기획자 및 개발자들이 한번 재고해 봐야할 사이트다. 디자인 면이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국내의 그것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 사이트에 이미지를 삽입해 보면 숨어있는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의 삽입이 아니라, 위치 정보를 가진 이미지의 업로드가 일어날 때, 이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좌표값을 인식하여 맵 위에 구현해 준다. 국내 포털에서 일일이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를 움직여서 위치를 클릭하는 것과는 달리, 파일의 속성을 읽어 이를 위치 정보로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 밖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월드와이드 미디어 익스체인지(World-Wide Media eXchange, WWMX, http://wwmx.org)' 사이트나, 이 밖에도 지도 기반으로 여행 사진을 보여주는 '트립트래커(http://triptracker.net)' 등도 눈여겨 볼 만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과 지도를 결합한 블로그 개념의 해외 사이트 지오스내퍼(www.geosnapper.com)는 위치 정보를 가진 사진에 대해 자동 위치 인식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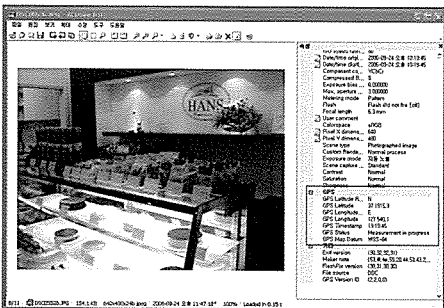
위치를 사진으로 찍는 삼박자

발제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느 곳인지 궁금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현재 위치를 기록해 두고자 하고, 장소 검색어만으로도 해당 위치에 관련된 사진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기술적 진화를 통해 하나 둘 해결되어 가고 있다.

본문을 통해서 알아본 기술들은 사진을 찍음에 있어 위치를 동시에 인식하고자 하는 디바이스 부분의 접근, 이미지와 위치 정보를 한데 어울려서 하나의 정보로 묶어주는 파일 포맷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를 웹에 게시함에 있어 자동 인식하게 만드는 지오태깅 인식 기술들이 움직이고 있다. 사진을 촬영하고, 저장하고, 게시하는 이 삼박자에 각각의 기술이 스며들어서 '위치를 사진으로 찍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넘쳐나는 사진 이미지에 대한 관리 및 검색 기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 생산 콘텐츠로서의 POI 정보 구축이 용이하여 LBS 서비스에 있어서도 풍성한 DB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만의 추억으로 남지 않고, 위치를 기억하는 기록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Exif 정보를 통해 사진의 GPS 측위값을 쉽게 알 수 있다.